











독립운동가 간호사·간호학생 34인을 기억합니다

일제 강점기 34인의 간호사와 간호학생은 병실에서, 길거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몸을 던져 싸웠습니다.

이러한 숭고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간호사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.

 <p>임수명 (1894~1924) 독립운동가 신모교 선생과 결혼. 항일 비밀문서 연락과 배포. 적의 흉탄에 숨진 남편 따라 자결.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.</p>	 <p>박자혜 (1893~1944) 간우회 활동 주도. 만주에서 단체 신채호 선생과 결혼해 함께 독립운동. 독립투사 지원 임무 수행.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.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.</p>	 <p>정종명 (1896~미상)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명인 이갑성을 돕다 체포. 경성여성동우회 활동. 근우회 간부로 여성계몽과 독립운동 알선.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.</p>	 <p>이정숙 (1899~미상) 일성단애국부인회 조직.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경성지부장 및 적십자부장 활동. 체포돼 대구 감옥에 수감.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.</p>	 <p>이성완 (1897~미상) 정신여학교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 배포.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결사대장 등 활동.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.</p>	 <p>박원경 (1901~1983) 황해도 재령 민세운동 주도해 육고 치름. 농촌계몽운동. 독립운동가 가족을 도움.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.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제4묘역 안치.</p>	 <p>탁명숙 (1892~미상) 1919년 3월 5일 학생들의 대대적인 만세시위에 참여. 강우규 의사 피신 돕다 투옥됨. 함경도 동명여학교 설립. 건국훈장 추서.</p>
 <p>김태복 (미상~1933) 대한민국애국부인회, 의용단, 근우회 등에서 독립운동 주도. 1930년대 빈민과 고아 위한 사회사업 펼쳐 후원받음. 건국훈장 추서.</p>	 <p>노순경 (1902~1979) 상해임시정부 군무총장을 지낸 노백린 장군의 처녀. 서울 훈정동 대묘(중묘) 앞 만세시위 주도해 육고를 겪음. 대통령 표창 추서.</p>	 <p>이도신 (1901~미상) 노순경, 박덕혜 등과 대묘 앞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육고를 겪음. 대통령 표창 추서.</p>	 <p>김효순 (1902~미상) 노순경, 박덕혜 등과 대묘 앞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육고를 겪음. 대통령 표창 추서.</p>	 <p>박덕혜 (1900~미상) 서울 훈정동 대묘 앞 만세시위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육고를 겪음.</p>	 <p>이아주 (1898~1968) 3·1운동 당시 정신여학교 학생들과 만세시위를 주도해 장역형 선고받음. 대통령 표창 추서.</p>	 <p>채계복 (미상) 1919년 3월 5일 학생 만세시위 참여. 연세주에서 부인독립회의 간호부 양성교육 실시. 의연금 모금활동.</p>
 <p>한신광 (1902~1982) 3·1운동으로 체포됨. 조선간호부협회 초대회장. 근우회 활동. 경성아저씨비조할 참여. 3·1여성동지회 태극번지 받음.</p>	 <p>함귀래 (1911~미상) 합일운동 어려웠던 1930년대 중반 독립운동에 참여.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사대문 형무소에 수감됨.</p>	 <p>홍덕주 (1890~1935) 남자간호사. 광주지역 민세운동 참여. 조선독립신문 입수에 배포한 혐의로 장역형 선고받음.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.</p>	 <p>김금석 (미상) 남자간호사. 광주지역 민세운동 참여로 장역형 선고받음. 대통령 표창 추서.</p>	 <p>김안순 (1900~1979) 광주지역 민세운동 참여. 장역형 선고받음. 대통령 표창 추서.</p>	 <p>김화순 (미상) 광주지역 민세운동 참여. 장역형 선고받음. 대통령 표창 추서.</p>	 <p>박옥신 (미상) 대한적십자회 대한지부 회원과 맹의관.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발한 활동.</p>
 <p>윤진수 (미상)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적십자부장 맡아 활동.</p>	 <p>장윤희 (미상) 독립운동가를 배호해 장역형 선고 받음.</p>	 <p>조명숙 (미상) 원산 구세병원 간호사로 3·1운동에 참여.</p>	 <p>김응숙 (미상)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 학생광복단에서 활동하다 체포됨.</p>	 <p>김오선 (미상) 애국부인회, 부인적십자단 등에서 독립운동.</p>	 <p>송정현 (1919~2010) 한국광복전선총괄총재대, 한국해방여성동맹 장립요원으로 활동.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.</p>	 <p>최혜순 (1900~1976) 상해한민애국부인회의 집사장으로 활동.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.</p>
 <p>최승원 (1917~미상) 합일운동이 어려웠던 1930년대 독립운동에 참여. 경성노조사건으로 투옥.</p>	 <p>이애시 (미상) 3·1운동에 참여. 대한청년연합회에서 활동.</p>	 <p>김은도 (미상)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.</p>	 <p>장옥순 (미상)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.</p>	 <p>박봉남 (미상)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.</p>	 <p>김여운 (미상)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.</p>	



대한간호협회